

SK, 동반성장펀드 1000억원 조성

정책금융공사·산은캐피탈·SK종합화학 참여로 ... R&D·증설에 투자

SK그룹과 한국정책금융공사는 1000억원의 동반성장 사모투자 전문회사를 최근 만들었다고 6월11일 발표했다.

SK 협력기업에 집중 투자할 전문회사로 정책금융공사, 산은캐피탈, SK증권, SK텔레콤, SK종합화학 등이 지분을 참여했다.

4월 설립절차를 마친데 이어 5월 말 금융위원회에 정식 등록했고, 2018년까지 6년간 운영된다.

SK증권과 산은캐피탈이 공동 운영자로 투자결정 업무 등을 담당한다.

펀드 자금은 SK그룹의 협력기업 가운데 성장 가능성은 크지만 R&D(연구·개발)나 공장 증설 등을 위한 자금을 조달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곳에 우선 투자한다. 심사절차를 거쳐 투자적격 결정이 내려진 협력기업에는 50억원 안팎의 지분투자가 이루어진다.

특히, 목표 수익을 초과한 투자 이익금의 일정비율을 협력기업에게 돌려주어 미래가치를 키우는 <종자자금>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.

SK는 협력기업 임직원 교육과정인 <SK 동반성장 아카데미> 등 기존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통해 비재무적 지원도 하기로 했다.

SK증권 관계자는 “협력기업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2-3개월간의 심사절차를 거치면 8-9월 제1호 투자대상이 나올 것”이라며 “좋은 성과를 거두면 제2와 제3의 추가 펀드를 조성할 계획”이라고 밝혔다.

한편, SK그룹은 5월 협력기업의 중장기 성장을 돕기 위해 교육, 기술, 자금 등 3대 분야에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<2012 동반성장 실천계획>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12/06/11>